

#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대학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문화(Culture)라고 하는 것은 사·공 간을 드러내는 가치, 신념, 행동 양식을 포함해 전통, 언어, 예술, 규범 등,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나 구성원들의 모든 행동 양식을 포함한 그 시대의 상징체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음식, 패션, 콘텐츠(contents) 그리고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사회 규범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가끔 '문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인 인간이란 보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뜻한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문화는 단순히 외부의 규범이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가치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행동에 반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문화인'은 단순히 문화적

규범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인간 존엄성 등을 포함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각자의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심과 참여를 표하는 사람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고와 가치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문화적인 역사를 일궈냈으며 민주국가로서의 자랑스러움이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강물에 비친 달을 쫓는 취인(醉人)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화적 토양은 일순간 강그리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아직까지도 특정되고 편향된 시각에 기대어 실제 없는 허상을 그려내며 세상을 본인만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일방적 사고는 책임회피, 남 탓 핑계, 음모론 등으로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변인들마저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몰염치의 끝판이다.

자신의 과오(過誤)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했던 독재자들의 모습들은 모두가 처참했다. 혁명의 원인을 귀족과 민중의 탓으로 일관했던 무능한 군주 루이 16세(Louis 16)는 결국 단두대에 이슬이 되었고,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 Ceausescu)도 국가의 몰락을 서방과 내부의 반대파 탓으로만 돌렸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들은 대체로 절대적 권력, 억압적인 정치 체제, 선전과 프로파간다식 성향을 나타내며,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념 갈라치기를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프로이트(S.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연구에 기반을 둔 정신역동 이론 중 투사(projection)라는 방어기제가 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다. 이는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뿐더러 '문화인' 과도 거리가 멀다.

'문화인'은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며, 다른 이와 소통을 통해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문화인'은 나 아닌 타자(他者)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자복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민주문화국가는 누구에게나 공명(公明)하고 정대(正大)한 믿음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서 완성된다. 오늘도 문화시민들은 법을 준수하며, 남을 기망(欺罔)하지 않고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인 것이다.

## 社說

### 잡은 시험 출제 오류 막을 대응 내놔야

#### 재발방지 위한 노력 시급해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이 빈번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한다. 정답이 없거나 출제오류·복수 정답 등 잘못된 시험문제로 인한 재시험 사례가 많아져서다. 이유야 어떻든 고교에서 재시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불신을 키울뿐더러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의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68곳의 지필평가 재시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39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재시험은 학교 내에 구성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데, 지난해 재시험 사유로는 '정답 없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제 오류 75건·복수 정답 14건·문항 전제 3건·시험 범위 오류 2건 기타 36건 등이다. 재시험이 잦은 교과목은 과학 68건·사회 66건·수학 48건으로 3과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어 27건·영어 16건·기타 14건 등이다. 문제

는 재시험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64건·2023년 19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재시험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진 데다 내신과 성적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험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재시험은 학생들이 시험 문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한다.

현행 대입 체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재시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특히 재시험 증가는 지역 고교들의 시험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학교 내신과 학사 관리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재시험 관행을 이대로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재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와 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어 27건·영어 16건·기타 14건 등이다. 문제

### 해상대중교통 국가책임 헌법적 권리다

#### 서삼석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여객선 등 해상대중교통의 운영과 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섬 주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질지 기대한다.

전국의 64%인 2165개의 섬이 있는 전남에는 272개의 섬에 16만 50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전남을 운항하는 52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1~2회 운항에 그친다. 그마저 바다의 조건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기 일쑤다. 육지와 거리가 멀고, 주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섬도 산재해 있다. 전남도가 행정선을 이용해 일부 소외 도서에 항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섬에서 교통단절이 생활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

타까운 일이다. 도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準)공영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운행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여객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를 이동하면서 불편을 느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영해 기점으로 영토와 국방, 안보에 중요한 섬과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도 크다. 서 의원도 발의한 법안에서 대중교통수단을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신안군의 여객선 공영제는 섬의 정주 여건을 유지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든 혁신행정의 성과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상대중교통의 국가책임은 꼭 가야 할 길이다. 국회는 서 의원이 발의한 '해상대중교통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섬 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버스는 물론이고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눈 내린 활주로에 델타항공 여객기가 뒤집혀 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승객 등 80명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기가 이 공항에 착륙 중 전복돼 최소 15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서석대



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僞作) 논란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위작 논란이 된 1977년 작 '미인도'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소장품이었다. 그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이후 그의 소장품인 미인도는 국가로 귀속, 국립현대미술관에 입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작품이라 위작이라고 의심조차 안했다. 천 화백이 1991년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하기 전까지 말이다.

천 화백의 위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김재규 소장품이었다가 국가에 환수돼 미술관으로 온 경위가 확실하다는 근거와 전문위원이었던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진품으로 감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가짜가 아니라고 맞섰다.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역시 1·2차 감정에서 진품으로 결론냈다. 작가의 의견을 감정 우선순위를 둔다는 협의 규정마저 무시한 처사였다. 위작 사건으로 그녀의 창작활동은 파탄을 맞게 된다. 그녀는 결국 절필을 선언하고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1999년 위작범이 나타났고, 프랑스 르브르미술관 감정팀까지 천경자의 작품임 확률은 0.0002%라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미인도가 천경자 씨의 진품이라고 결론 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천 화백은 뇌출혈로 사

망했다. "자식을 몰라볼 수 없다"며 천 화백은 한사코 '가짜'라고 단언했다. 작가는 '미인도'가 '가짜'라고 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감정협회, 화랑계와 검찰까지 '진짜'라고 했다. 위작 미인도 사건이 일어난 후 진실은 실종했고,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며 사실이 아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 버렸다. 천 화백은 끝내 '미인도'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2025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천 화백 가족이 서울중앙지법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이 위작 사건 수사 당시 9명의 감정인이 낸 감정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천경자 화백은 미인도를 이렇게 말했다. "힘없는 눈, 병병한 코, 조잡한 머리의 꽃, 숫자 표기의 필체도 달랐고 화풍도 엉성했다." 천 화백 가족들은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진실을 여전히 쫓고 있다. 검찰이 진품임을 근거로 제시했던 감정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권력과 집단의 우격다짐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버렸는지 그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